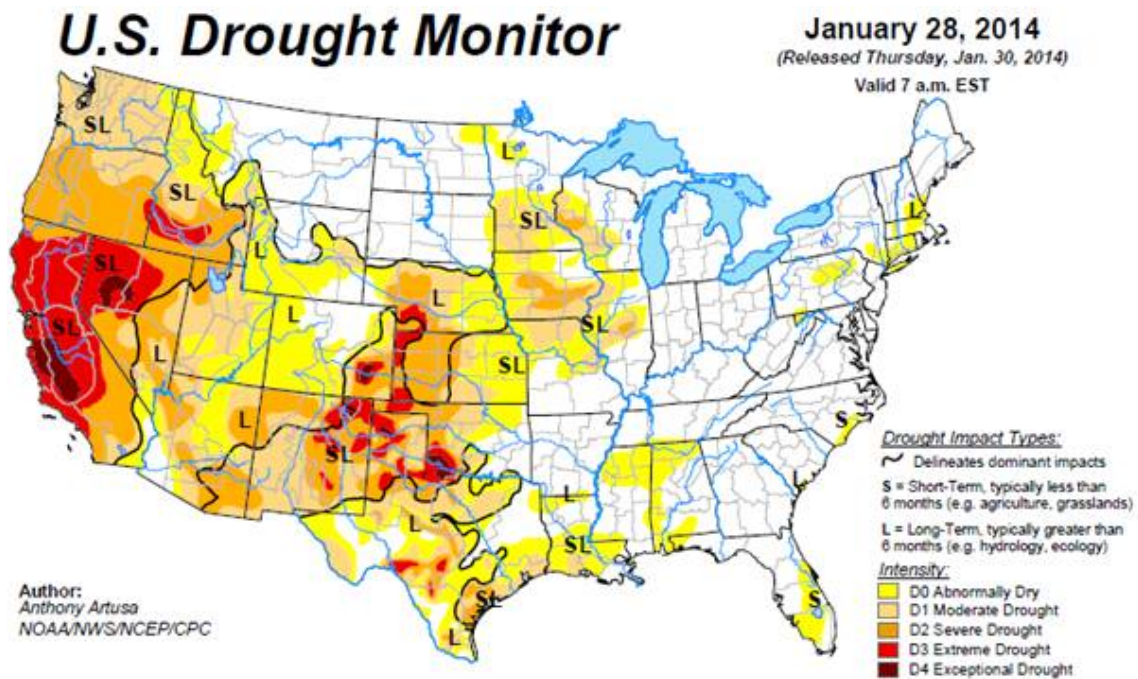


2월 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5)

□ 미국 기후 현황(01/28~02/01)



한랭한 날씨가 다시 한 번 미국 동부지역에 발생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서부 대평원 지역의 일부 지역으로도 이동하였다. 더욱 차가운 날씨는 북서부 지역에서도 형성되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날씨가 유지되었다. 중서부 상단 지역의 경우, 주간 기온은 평균 10°F로 나타나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2달간 지속된 추운 날씨로 인해 가축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남부지역에서는 차가운 날씨가 드물게 겨울 폭풍을 발생시켰다. 1월 28~29일에는 동부 Texas부터 남부 Atlantic 연안 평야지대까지 눈, 진눈깨비, 결빙성의 비가 확대되어 내렸다. 플로리다 지역의 경우 차가운 비를 피할 수 있었으며, 효율적인 수분이 공급되었다. 북쪽지역의 콘벨트 지역은 전역에 걸쳐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춥고 건조한 상황이 마무리 되었다. 중서부 지역의 강수량은 비가 눈으로 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더욱 한랭한 대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평원 지역에는 눈이 내려 토양을 덮었으며, 이로 인해 가을밀의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막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주말에 중부 평야지대에 내린 눈으로 인해 1월 27~28일 기온은 0°F 아래로 하강하였다.

□ 농업 현황 요약(01/27~02/02)

록키 산맥 기준 동부 지역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 지역, 플로리다와 북부 뉴잉글랜드의 경우는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15°F인 것으로 나타나, 평년대비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경량을 기록하였으며 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플로리다 지역만 2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은 더 많은 강수량이 요구되는 실정이지만, 겨울철 내린 강수량은 평년대비 한참 뒤쳐진 상황이다.

□ 세계 기후 현황(01/26~02/01)

- 유럽: 서부 유럽에서는 폭풍우가 발생하였으나, 남부 유럽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천천히 이동하는 대서양 폭풍과 이와 연계된 한랭 전선이 Ireland와 United Kingdom에서부터 남부 지역의 France, 북부와 중부의 Iberian 반도까지 폭우(10-50 mm)를 발생시켰다. 강우로 인해 Spain의 단단한 밀의 수분을 증가시켰으며, 북부 작물 생산지역에서 봄철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 저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지중해에서 발생한 폭풍은 Italy와 남동부 France에서 폭우와 산악지역에 눈이 내리게 하였고(10-100mm, 국지적으로 더 많음), 가을밀을 위한 저수지의 물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더운 기간에 필요한 관개에 추가적인 수분을 제공하였다. 독일에서는 눈이 내려(2-10 cm) 강수량이 증가하였다. 지중해 폭풍은 Romania와 Bulgaria에서 내린 폭설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동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 가을밀이 발아할 수 있는 보호적 역할을 해 주었다. Danube River Valley의 강설량은 5~30 cm이며, Poland에서는 강설량이 2-15 cm로 나타나, 대체로 가을밀과 유채의 발아를 보호해 주기에 충분하였으나, 기온은 영하 17°C를 기록하였다.
- 구소련(서부): 겨울 내 가장 추운 날씨가 관측되었다. 이번 주 기온은 평균 10~20°C로 나타나 평년대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동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지역의 주요 가을 밀 재배지역의 밤 최저 기온은 영하 25°C(혹은 더 낮음)로 하강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와 중부의 경계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36°C까지 내려간 곳도 있었다. 북극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눈이 내려(5-30 cm) 대체로 많은 지역에서 작물의 겨울 동해에 따른 피해를 막기에 충분하였다.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평야는 노출된 밀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동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의 강설량은 5~10 cm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 호주: 반갑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남부 Queensland와 북부 New South Wales 지역에 다시 발생하였다. 기온은 평균 1~2°C로 나타나 평년대비 낮았고, 비가 적게 내린 탓에 수수와 같은 여름 곡물들이 자라는 토양이 건조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면화의 관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의 강수량은 2013년 8월 1일 이래로 평년대비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생산량 예측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 지역은 열대 사이클론인

Dylan의 영향으로 중부 Queensland 대부분의 지역에 소나기(5-50 mm, 혹은 그 이상)가 내렸으며, 미성숙한 여름작물에 도움이 되었다.

- 아르헨티나: 2주 동안 전국의 주요 농업 생산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내린 비가 여름 곡물, 유지작물, 면화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고 계절에 적합한 일반적인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여 생육상황에 도움을 주었다. 중부 아르헨티나(남부 Cordoba에서 북동부Buenos Aires)의 총 강수량은 25~75 mm를 기록하였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대비 1°C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최고 기온은 30°C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a Pampa 와 남서부 Buenos Aires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균 2°C로 평년보다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30°C 중·후반에 이르렀다. 고온과 건조함은 남서부 Cordoba 지역에 발생하였지만,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25-10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은 곳도 있음)가 내려 다양한 생육상황에 놓인 여름작물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주말쯤에는 더욱 건조한 날씨가 발생했고 기온은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수준(낮 최고 기온이 38-40°C)이었으며, 높은 수분 증발률을 나타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1월 30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은 각각 96%, 98%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해바라기 수확은 현재까지 20% 진행되었으며, 작년에는 35% 수준이었다.
- 브라질: 남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으며,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2주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총 강수량은 25~ 50 mm가 기록되었으며, 대두와 옥수수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본래 소나기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며, 낮 최고 기온은 거의 매일 30°C초·중반에 이르렀으며, 주간 기온은 평균 4°C로 나타나 평년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 건조한 날씨는 북부와 남부의 더 많은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동부 Mato Grosso do Sul에서 Esperito Santo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mm 이하로 집계되었다. 이 지역은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역으로 2주 동안 시기에 맞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서부 Bahia와 Goias 인근 지역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대두, 면화, 다른 지역 작물들이 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Mato Grosso와 Mato Grosso do Sul 지역에는 낮 최고 기온은 30°C 중반으로 높은 수분 함량을 요구하였으나 국지적으로 폭우(25-100 mm)가 내려, 대두, 옥수수, 기타 여름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이 유지되었다. 북동부 연안에 내린 가벼운 소나기(10 mm 이상)는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의 관개 저장량을 증가시켰다.